

여성고용과 사회서비스업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책임연구원

smjung@kli.re.kr

1. 머리말

지난 몇 년간 보건 및 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여성에 취업자 증가가 집중되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여성취업자가 감소하는 동시에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여성 서비스업 부문의 전문직종 취업자가 증가하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라 볼 수 있는 여성 전문직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여성에게 양질의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Bosch & Wagner(2005)는 유럽 여성 서비스업 연구에서 여성노동의 대안을 공공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업으로 보고 있으며, OECD의 연구에서도 여성고용률과 사회서비스업 고용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업을 통한 여성 고용률의 양적 증가가 질적 측면의 어떠한 변화를 동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여성을 중심으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 이 글은 노동리뷰(2012) 8월호에 게재된 여성고용과 사회서비스업을 바탕으로 수정 및 재구성한 것이다.

로 사회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증가를 넘어 질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서비스업의 세부산업은 산업의 전부를 포함하는 산업과 일부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일부를 포함하는 산업은 제외하고 전부를 포함하는 산업으로만 구성된 광의의 사회서비스업을 다루도록 한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관련 일자리 등 저임금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부 포함되는 산업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S),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T)으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일자리를 분석에 포함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분석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Q)을 사회서비스업으로 칭하고 각 산업의 특징을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전반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회서비스업 세부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서비스업의 인적속성과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특징

1. 사회서비스 부문으로의 여성 고용 확장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의 고용구조는 90년대 중반 이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성 취업자의 빠른 증가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38.2%에서 2012년 41.7%로 증가하였고, 절대 수도 두 배 가량 증가해 2012년 10,294천 명을 기록하였다. 또 여성 고용률도 빠르게 증가해 남녀 고용률 격차도 줄어들었다.

1) 9차 산업분류에 따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Q)은 사회서비스업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S),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T),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에 사회서비스업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근 산업별 취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증가가 눈에 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 및 사회복지업(Q)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업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5년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3%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1~10월 평균 4,259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7.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2005 58.3%에서 2013년 1~10월 평균 65.2%로 증가해 사회서비스업의 여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는 여성 취업자에서 사회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는데, 2005년 18.6%에서 2013년 1~10월 26.5%로 증가해 전체 여성취업자의 1/4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Wagner(2005)는 여성의 고용과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상호관계가 있다고 보며, 특히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의 여성고용은 여성 총고용과 상관관계가 높음을 주장한다. 즉 일하는 여성은 가정 내 일을 맡아 줄 서비스 부문이 필요하고, 서비스 부문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소득은 서비스 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소득은 다시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소비되어 이는 곧 사회서비스 부문의 증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표 1>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10월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3,034	3,184	3,277	3,466	3,861	3,912	3,948	4,094	4,259
(취업자 대비 비중)	(13.3)	(13.8)	(14.0)	(14.7)	(16.4)	(16.4)	(16.3)	(16.6)	(17.0)
여성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1,768	1,903	1,958	2,087	2,377	2,482	2,531	2,650	2,775
전체 취업자에서 사회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13.3	13.8	14.0	14.7	16.4	16.4	16.3	16.6	17.0
사회서비스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58.3	59.8	59.7	60.2	61.6	63.4	64.1	64.7	65.2
여성 취업자 중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비중'	18.6	19.6	19.9	21.1	24.3	25.0	25.1	25.7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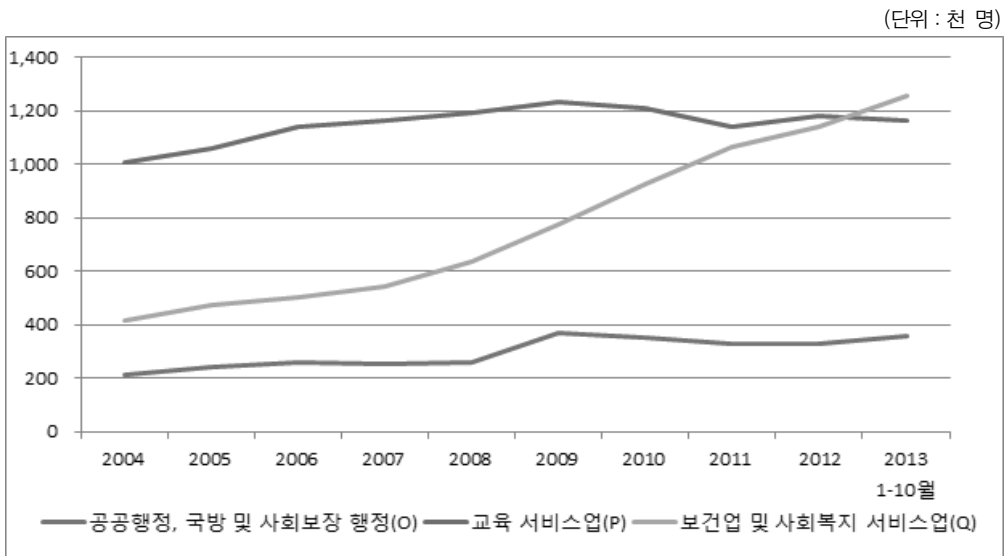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또한 사회서비스를 구성하는 교육, 의료, 복지, 공공행정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인프라로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사회서비스 부문에 존재하는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고용이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평균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들이기 때문이다(김혜원 외, 2006).

2.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특징

[그림 1]에서 보듯 여성 취업자의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급격한 증가인 것으로 보인다. 2005년 471천 명이던 보건 및 사회복지업 취업자는 2013년 1~10월 평균 1,256천 명으로 빠르게 양적 증가를 했고, 여성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에서 12.0%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표 2 참조).

자영업 중심의 도소매음식 및 숙박업에서 임금근로자 중심의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으로의 서비스업 구조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전문영역인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임금근로 비중이 각각 80%, 97%의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비교적 임금근로자 중심의 전문화된 경향으로 취업자 구성이 변화하는 것은 서비스업의 고용의 질 측면에서 새로운 고용창출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 1] 여성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 여성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

	취업자				증감				비중			
	2005	2009	2011	2013 1-10월	2005	2009	2011	2013 1-10월	2005	2009	2011	2013 1-10월
전체	9,526	9,772	10,091	10,482	162	-102	177	185	100.0	100.0	100.0	100.0
A	850	738	683	665	-16	-45	0	-6	8.9	7.6	6.8	6.3
B	1	2	1	2	0	0	0	0	0.0	0.0	0.0	0.0
C	1,371	1,160	1,273	1,248	-78	-110	36	-15	14.4	11.9	12.6	11.9
D	13	15	13	15	0	-2	1	3	0.1	0.2	0.1	0.1
E	7	8	12	13	2	-1	3	2	0.1	0.1	0.1	0.1
F	158	163	156	138	-3	-12	-10	-10	1.7	1.7	1.5	1.3
G	1,754	1,632	1,610	1,653	-40	-35	-24	14	18.4	16.7	16.0	15.8
H	101	94	119	132	12	-1	10	2	1.1	1.0	1.2	1.3
I	1,419	1,294	1,221	1,272	-2	-102	-27	28	14.9	13.2	12.1	12.1
J	206	179	184	185	19	11	6	4	2.2	1.8	1.8	1.8
K	376	382	425	444	2	-32	34	6	3.9	3.9	4.2	4.2
L	157	176	177	173	18	7	2	1	1.6	1.8	1.8	1.6
M	190	262	283	297	17	0	8	7	2.0	2.7	2.8	2.8
N	300	407	482	521	43	1	43	16	3.1	4.2	4.8	5.0
O	239	370	329	355	26	108	-21	20	2.5	3.8	3.3	3.4
P	1,058	1,233	1,139	1,165	53	42	-70	-16	11.1	12.6	11.3	11.1
Q	471	774	1,063	1,256	54	140	140	119	4.9	7.9	10.5	12.0
R	159	157	177	150	24	-10	25	-14	1.7	1.6	1.8	1.4
S	565	583	595	627	29	-56	19	12	5.9	6.0	5.9	6.0
T	126	140	147	172	5	-5	4	12	1.3	1.4	1.5	1.6
U	6	3	4	2	-1	0	1	-1	0.1	0.0	0.0	0.0

주: 1) 9차 산업분류 기준임.

2)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E: 하수폐기물, 환경 등, F: 건설업, G: 도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등,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임대업, M: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N: 사업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여가, S: 기타개인서비스업, T: 가구내서비스업, U: 국제기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연령 구성을 보면, 2012년 공공행정서비스의 평균연령이 45.5세로 가장 높은 반면, 보건업이 34.8세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3 참조). 비교적 보건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젊은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15~39세 비율에서 보건업이 68.3%, 교육서비스업이 59.1% 차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행정과 사회복지업은 40대 이상의 중고령층 비중이 절반이 넘는 등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행정서비스의 경우 60세 이상의 비중이 17.8%로 고연령 여성 취업자가 많음을 보이고 있다.

<표 3>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연령구성 (2012년)

(단위 : 세, %)

	평균연령	연령대 구성					전체
		15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이상	
여성취업자	43.5	19.6	20.5	26.2	20.9	12.7	100.0
공공행정서비스	45.5	11.5	28.7	24.5	17.5	17.8	100.0
교육서비스업	37.1	26.2	32.9	30.1	9.2	1.5	100.0
보건업	34.8	41.2	27.1	19.5	10.0	2.2	100.0
사회복지업	43.1	17.5	23.1	29.2	20.0	10.2	100.0

자료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2년 기준 여성 취업자의 63.3%는 고졸 이하의 학력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여성 사회서비스업은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사회서비스업의 세부 산업별을 보면,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대졸 이상 학력 비중이 64.9%로 높은 수준인 반면, 고졸 이하의 저학력의 비중은 20% 수준에 그쳐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보건업 역시 전문영역이라는 특성상 전문대졸 이상 학력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사회복지업은 전문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가 각각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다. 공공행정서비스는 학력구성의 양극단에 몰려있는데, 대졸 이상이 42.8%인 동시에 중졸 이하도 23.2%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학력구성 (2012년)

(단위 :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여성취업자	100.0	25.4	37.8	14.5	22.2
공공행정서비스	100.0	23.2	22.9	11.1	42.8
교육서비스업	100.0	2.7	17.7	14.7	64.9
보건업	100.0	5.2	31.0	41.2	22.7
사회복지업	100.0	17.5	31.7	28.6	22.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고용형태별 특징을 <표 5>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여성 임금근로자는 2013년 8월 기준 정규직은 59.4%, 비정규직은 40.6%이다.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세부 산업을 나누어 보면, 먼저 공공행정서비스의 경우 비정규직은 48.5%로 여성 임금근

로자 전체의 비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근로(45.3%)와 시간제(32.2%)에 대부분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의 비정규직은 41.3%로 세부 고용형태는 기간제(23.9%), 시간제(21.8%), 특수고용(6.3%) 순으로 비중이 두드러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업의 경우 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2013년 8월 기준 82.0%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중은 18.0%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대부분이 한시근로로 기간제(12.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시간제의 비중은 다른 사회서비스업과 다르게 낮은 수준(3.3%)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업은 보건업과 반대로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여성 사회복지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고용형태를 보면 기간제(34.2%), 시간제(28.0%)에 대부분 몰려있고, 파견근로(4.6%)에 일부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고용형태별 구성(2013년 8월)

(단위 : %)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고용형태별 구성(2013년 8월)					
	전체 임금근로	여성 임금근로	공공행정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업
임금근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7.4	59.4	51.5	58.7	82.0	47.5
비정규직	32.6	40.6	48.5	41.3	18.0	52.6
한시근로	18.8	22.8	45.8	26.4	15.2	37.9
기간제	15.1	18.1	45.3	23.9	12.3	34.2
계속고용	1.4	1.6	0.3	1.3	2.0	2.1
기대불가	2.3	3.1	0.5	1.2	0.8	1.6
비전형	12.1	13.2	3.2	6.6	0.2	4.6
파견	1.1	1.6	2.9	0.2	0.0	2.4
용역	3.5	3.4	0.0	0.0	0.0	0.6
특고	3.0	4.6	0.0	6.3	0.0	0.0
가내	0.4	0.9	0.0	0.1	0.0	0.8
호출	4.5	3.1	0.3	0.1	0.2	0.8
시간제	10.3	17.3	32.2	21.8	3.3	28.0

자료 : 통계청(2013.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근속기간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표 6>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여성 임금근로자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보았을 경우 2012년 기준으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 이는 2008년 이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신규진입으로 볼 수 있는 1년 미만 근속자는 2008년 28.9%에서 2012년 27.8%로 소폭 하락했다.

먼저 장기근속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교육서비스업을 살펴보면, 2012년 3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61.5%로 2008년 대비 5.0%p 증가한 반면, 1년 미만 근속자는 소폭 감소해 2012년 22.2%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행정서비스도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2008년 이후 증가해 2012년 54.7%를 기록했다. 한편, 신규진입으로 볼 수 있는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중도 2008년에 비해 약 1.5%p 증가해 32.0%를 나타내었지만, 1~3년 미만 근속자는 크게 감소했다. 이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로 양분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보건업은 1년 미만 신규취업자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고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은 소폭 증가해 2012년 42.7%를 기록했다. 근속이 1년 미만인 신규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업은 2012년 38.1%로 2008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은 2008년 대비 2.6%p 감소하여 31.5%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근속기간(2008년, 2012년)

(단위 : %)

	여성임금근로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업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미만	28.9	27.8	30.5	32.0	23.1	22.2	30.8	29.0	38.5	38.1	38.1
1~2년 미만	12.2	11.6	13.0	9.1	12.4	9.5	17.9	17.8	19.8	18.1	18.1
2~3년 미만	6.9	7.3	9.2	4.2	8.1	6.9	12.4	10.5	7.7	12.3	12.3
3년 이상	52.0	53.2	47.3	54.7	56.5	61.5	38.9	42.7	34.1	31.5	31.5

주 :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여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100)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업의 상대임금수준을 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사회복지업을 제외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은 임금 근로자 평균 시간당 임금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서비스업의 상대임금 수준은 사회서비스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사회복지업은 80%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7 참조).

시기별 변화를 보면, 공공행정서비스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던 2009년에 상대임금 수준이 크게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13년 소폭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은 2010년 크게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시간당 임금의 상대수준 추이

(단위 : %)

	여성임금근로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업
2008	100.0	129.5	140.6	121.9	89.1
2009	100.0	103.4	144.6	120.1	81.9
2010	100.0	116.1	139.6	118.9	83.6
2011	100.0	118.5	141.9	113.7	83.9
2012	100.0	124.0	143.6	112.3	83.0
2013	100.0	120.0	147.6	115.2	83.1

주 : 1) 시간당임금=월평균임금/(평소1주당근로시간×368/84)

2) 각 연도 여성임금근로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산업의 상대임금임.

3)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여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8월.

2013년 8월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사회보험가입 및 근로복지 수혜 여부를 보면, 사회서비스업 대부분이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가입률과 수혜율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8 참조). 특히 보건업의 경우 취업자의 90%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복지 수혜율도 여성 임금근로자나 다른 사회서비스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공공행정서비스와 교육서비스는 여성

전체 임금근로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이 제외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복지업은 여성 임금근로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사회보험가입률을 나타내지만,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는 여성 임금근로자 전체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사회보험가입 및 근로복지 수혜 여부의 연도별 차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9>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사회보험가입 및 근로복지 수혜 여부(2013년 8월)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여성임금근로자	60.3	62.7	55.0	59.3	62.0	38.8	51.1
공공행정서비스	65.7	68.9	23.3	59.8	62.7	57.6	60.9
교육서비스업	67.9	68.2	30.0	65.2	66.8	53.1	62.7
보건업	92.1	93.9	89.5	91.1	85.6	52.5	76.9
사회복지업	77.1	81.4	79.2	74.2	65.6	28.0	51.0

주: 1)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만 계산하고, 지역가입자나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함.
 2) 고용보험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함.

자료: 통계청(2013.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3. 맺음말

최근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여성고용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구조가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서비스업도 지역업 중심의 도소매음식 및 숙박업에서 임금근로자 중심의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으로 구조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회서비스 가운데 전문직 서비스업 부문인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증가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 여성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여성참여가 여성 고용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세부 산업을 살펴보니 고학력의 전문영역인 교육서비스와 보건업은 비교적 낮은 연령이 많고 여성 취업자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높으며 사회보험가입 및 기업복지수혜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서비스는 높은 연령, 저학력, 높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업 취업자의 일자리 질이 더욱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들이 시장화되어 공식적인 노동시장으로 확장되면서 서비스 부문으로 이전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이 지배적인 산업은 저임금과 경력불인정, 고용불안정의 현상이 수반되었다. 여성이 집중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이 같은 현상이 확산되는 것은 결국 노동시장 전반에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더 나은 고용조건(임금, 고용보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더 나은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LI**

참고문헌

- Wagner Alexandra(2005), "Working in the Service Sector", Services and the employment prospects for woman Ch5.
- 김혜원 · 안상훈 · 조영훈(2006),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